



## 습근평,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

6월 10일 오전, 습근평 중국 국가 주석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습근평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재차 축하했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국과 한국은 떼어 놓을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다. 수교 33년 동안 양국은 리념과 사회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서로 지지하며 공동 발전을 이루었다.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중한 관계는 시대 발전의 흐름에 부합되고 양국 국민의 근본적인

리익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에도 유리하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중국과 한국은 응당 수교 초심을 지키고 선린친선의 방향을 확고히 하며 호혜상생의 목표를 견지하여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양국 국민에게 더 많은 복지를 가져다주고 변화와 혼란이 교차하는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더 많은 확정성을 주입해야 한다. 양국은 각급, 각 분야의 교류를 강화해 전략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양자 협력과 다자간 조정을 긴밀히 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함께 수호하고 글로벌 및 지역 공급망의 안정과 원활한 류통을 보장해야 한다. 양국은 인문 교류를 심화해 상호 이해를 깊게 하고 민심의 기반을 다져 중한 친선이 양국 인민의 마음속에 뿌리내리도록 하며 상대방의 핵심 리익과 중대 관심사를 존중하고 양자 관계의 큰 방향을 확고히 하여 중한 관계가 올바른 궤도를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재명은 이에 동감한다고 표하며

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교류 역사가 오래되었으며 경제, 무역, 문화적 연계가 긴밀하다. 습근평 주석의 탁월한 지도력 아래 중국은 위대한 발전 성과를 이룩하여 세인의 찬사를 받고 있다. 나는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중국측과 함께 양국간 선린친선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고 양국 국민간의 감정을 개선하고 증진해 한중 협력이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다.

/ 중앙텔레비전방송뉴스

## 예술로 길림성—한국 우정의 화폭 그려간다

- ‘중한예술가작품전’ 장춘미술관서 개최
- 유화·수묵화·서예·사진 등 80 여점 전시



길림성과 한국의 문화예술교류를 촉진하고 양국 인민의 우호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중한예술가작품전’이 6월 10일 장춘시미술관에서 개막되었다. 8일간 지속되는 이번 작품전은 길림성과 한국간 문화예술교류의 중요한 성과로 중한 우호 협력을 예술로 표현하는 뜻깊은 자리이기도 하다.

길림성인민대외우호협회, 길림성문학예술계연합회, 한중미술협회, 길림성미술가협회 공동 주최로 마련된 이번 ‘중한예술가작품전’에는 중한 양국 예술가 40 여명이 참여해 수묵화, 유화, 사진, 서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80 여점을 선보였다.

길림성인민대외우호협회 부회장 고산은 “중한 두 나라의 문화예술교류는 오래전부터 활발히 이어져왔으며 민간 친선교류도 밀접히 진행해왔다. 현재 길림성은 고수준의 대외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고품질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길림성은 한국 각계 친구들과 함께 양국의 경제무역, 인문 교류 협력을 계속 깊이있게 전개해 민간 친선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표했다.

한중미술협회 회장 차홍규는 “협회 창립 이래 두 나라 예술가들은 매년 전시회를 개최하여 교류를 추진하고 우의를 강화해왔다.”며 “한중미술협회는 금후에도 길림성 예술계와의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한중 우호 발전

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필묵교유(筆墨交融)’ 코너는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로 되었다. 장춘미술관 관장 조경무가 강인하면 서도 힘차게 ‘화(和)’자를 쓰자 한중미술협회 회장 차홍규가 이어 우아하면서도 생동감 있는 ‘미(美)’자를 썼다. 동양 철학과 미학의 정수를 담은 두 한자가 한쪽의 선지 위에 어우러져 ‘이화위귀(以和为贵), ‘미미위공(美美与共)’의 문화 리념을 완벽하게 구현해냈다. 이는 중한 문화예술교류의 화합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현장 레빈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이끌어냈다.

개막식후 참석자들은 주최측의 안내에 따라 전시장을 돌아보면서 이번 전시에 출품된 중한 예술가들의 정성어린 서화 작품들을 흥취진진하게 감상하며 창작 경험담을 나누기도 하였다. 이번 ‘중한예술가작품전’은 양국 예술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아 국화(国画), 유화, 서예 등 다양한 예술 형식을 아우르며 양국 특유의 예술 풍모와 현대적 감각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의 성공적 개최는 양국 예술가들을 위해 재능을 발휘하고 기량을 교류할 수 있는 교량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길림성과 한국간 문화 교류 및 협력 심화에 새 활력을 불어넣었다.

/ 주동 최화 기자

## 무형문화유산 된장, 동북아 장문화의 새 장 열다

조선족 민속음식 등 전통문화 전시, 친환경 생태문화 적극 창도

제21회 중국조선족(연길)생태·된장오덕문화절 및 오덕된장술축제(이하 ‘된장문화절’)가 6월 9일 연길시의란진 련화촌에 위치한 오덕된장술유한회사 원료기지 천하제일 민들레 생태된장마을에서 펼쳐졌다.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현장을 찾아 조선족 민속문화를 체험했다.

개막식에서 연변오덕된장술유한회사 리동춘 리사장은 조선족들에게 있어 된장은 식탁에 없어서는 안될 조미료일 뿐만 아니라 깊은 력사 문화 내포가 있는 전통 음식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행사의 개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무형문화유산 된장에 관심을 갖고 된장문화에 대한 계승과 발전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표했다. 나아가 “무형문화유산 된장을 뉴대로 동북아 지역의 문화 교류와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무형문화유산 된장의 문화 내포를 깊이있게 발굴하고 무형문화유산 된장의 제조 공예를 다 함께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 리동춘 리사장은 또 연변오덕된장술유한회사 해외 홍보대사인 진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한국간장포럼과 로씨야 우수리스크로인단에서 대회에 기념품을 증정한 한편 문화교류협력 의정서를 체결했다.

무형문화유산인 된장문화에 짙은 관심을 갖고 공연과 행사를 체험하기 위해 국내외는 물론 연변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행사 현장은 축



제의 열기로 들끓었고 흥겨운 분위기가 넘쳤다.

무대에서 정제로운 공연들이 연달아 펼쳐진 가운데 무대 밖에서는 조선족 전통된장 담그기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활동에 참가한 사람들과 당지 시민, 관광객들은 전문가의 지도 아래 비례를 따져가며 된장 담그기 체험을 이어갔다.

료해에 따르면 된장문화절은 2005

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연속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는바 올해로 21 회째이다. 이는 연길시가 연변주 당위와 정부의 ‘문화강주·관광흥주’ 전략포치를 깊이있게 관철하고 지속적으로 문화관광산업 건설을 가속화하고 있는 중요한 구성부분인바 연길시의 조선족 민속, 음식 등 전통문화를 전시함과 더불어 친환경 생태문화를 창조하는 빛나는 ‘명함장’으로 되었다.

년에도 다양한 활동들로 민속, 음식 등 전통문화를 한층 더 발굴하고 도시의 력사 문화 함의를 향상시키며 민속문화유산에 대한 보호 및 계승을 이끔면서 문화절을 계기로 브랜드를 구축, 민속문화의 추진과 생태관광의 패수 발전을 가일층 촉진하게 된다.

/ 김가혜기자 / 사진 박경남특약기자

### 간추린 뉴스

#### 전국적으로 ‘무통’분만 서비스 보급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부문은 6월 5일 통지를 발표하여 2025년말까지 전국적으로 산부인과 의료서비스를 전개하는 3급 의료기구 전부가 ‘무통’분만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게 하고 2027년까지 산부인과 의료서비스를 전개하는 2급 이상 의료기관 모두 ‘무통’분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 1인당 1만 5,000 원! 보조금 지급

일전 <농안현 피징용지 농민 기본양로보험 납부 보조금 실시방법>이 발표되었는데 조건에 부합되는 피징용지 농민들에게 기본양로보험 납부 보조금을 지급하기

로 했다. 피징용지 농민의 기본양로보험 납부 보조금은 1인당 매년 1,000 원으로 15년간 보조해주며 도합 1만 5,000 원의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 길림성 호시 수입 상품 가치 최고치 경신

1월부터 4월까지 길림성의 호시 수입(互市进口) 상품은 1만 2,000 톤으로 그 가치가 1억 1,000 만원, 그중 차지가공 상품이 근 1만톤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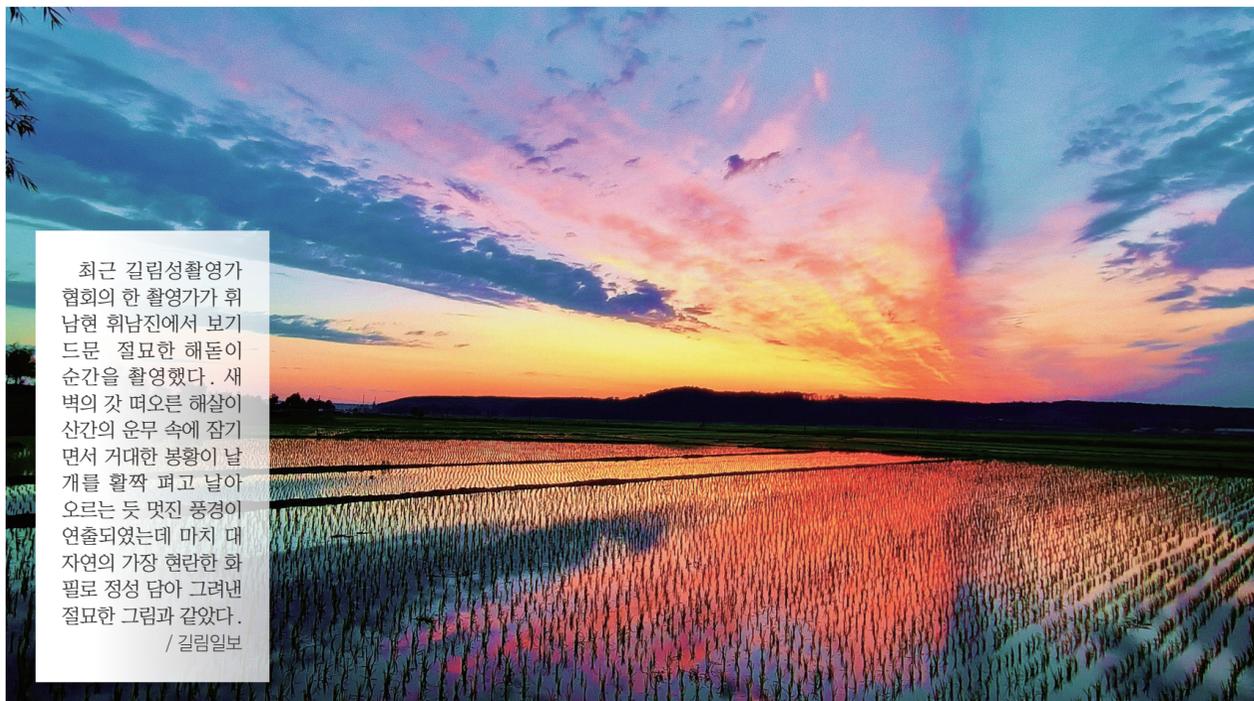
로 동기 대비 14.5% 성장하여 근년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직접 교역에 참가한 변경 주민은 1만 1,000 여명으로 350 여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 길림성 두개 진 전국 500 강에 선정

일전, ‘2025 진역(镇域)경제 혁신발전 포럼’이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서 <2025 중국 진역 경제 고품질 발전 연구> 보고가 발

표되었는데 길림성 농안현 합릉진, 공주령시 범가툰진이 2025 진역 경제 전국 500 강에 선정되었다.

/ 종합



최근 길림성촬영가 협회의 한 촬영가가 휘남현 휘남진에서 보기 드문 절묘한 해돋이 순간을 촬영했다. 새벽의 갓 떠오른 해살이 산간의 운무 속에 잠기면서 거대한 봉황이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 오르는 듯 멋진 풍경이 연출되었는데 마치 대자연의 가장 험란한 화필로 정성 담아 그려낸 절묘한 그림과 같았다.

/ 길림일보